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1차
- 인문계열(인문사회)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4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다]의 상황을 [라]-[마]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분석하되, 서술자가 추구하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라.

제시문

[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수가 이들과 같은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돼 무기력증이나 불안감, 우울감이 생기는 현상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번아웃에서 탈출하기 위해 제주 한 달 살기와 같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쉼을 찾고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리스트를 만들며 회복탄력성을 키우라고 강조한다. (중략)

20대는 번아웃을 느끼는 이유로 남들과의 비교(39.8%)와 완벽주의적 성향(3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30대에서는 성공에 대한 압박(35.5%)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MZ세대가 조기교육과 입시, 취업의 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과거에 비해 번아웃을 빨리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문 응답자인 A씨(26)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면서 취업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됐고 늘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고 했다. 사무직 여성 B씨(32) 역시 “비전이 없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소화불량과 만성피로가 왔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2.7.12.

[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니계수가 있듯이 유사한 산출방식으로 ‘행복지니계수’도 구할 수 있다. 외국의 여러 행복 실증연구는 행복지니계수가 소득지니계수의 절반 정도라고 보고한다. 이에 비춰보면 2016년 유엔 행복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행복평등 96위’(총 157개국)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소득의 성장과 분배 구조에 비해 행복총량의 분배 구조가 훨씬 더 나쁜 상태인 것이다. (중략)

한국의 행복불평등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다. 유엔 행복보고서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개별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국민 전체 평균(척도 10점 만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인 표준편차는 한국(2.16점), 중국(1.99점), 일본(1.88점) 순이다.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에서의 격차가 우리 사회 내부에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다.

-『한겨레』, 2016.11.4.

[다]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임금,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며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

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며,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은 실정이다. 즉, 일자리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임금 격차도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無)노조로 대변되는 2차 노동시장 진입을 기피하고, 대기업, 정규직, 유(有)노조로 대변되는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직업 탐색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고, 두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일보』, 2020.2.25.

[라] 사람들 각자가 가진 행복의 기준과는 별개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갖추어져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정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주 환경이란 인간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말한다. 경제적 안정 역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간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마] 행복과 소득의 (이스털린의) 역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국가들 사이에서도, 특정 시점에서 행복은 소득과 정의 관계를 보이면서 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의 추세는 소득의 추세와 정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장기적인 경향에서 행복과 소득의 추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행복과 소득은 대체로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중략)

대학 졸업 후 희망 소득에 대한 사고 실험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했다. A는 10만 달러를 벌지만 동기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경우, B는 5만 달러를 벌지만 동기들은 2만 5천 달러를 버는 경우다.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 약 3분의 2가 B를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이 버는 소득은 이 학생들이 자신의 소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절대적인 금액이 더 적더라도 자신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선호했다. 최근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에이머스 트버스키는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을 평가하는 경우, 그들이 상황을 판단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인 준거 기준을 대체로 염두에 두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준거 기준은 대부분 사회적 비교, 즉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설정된다.

-이스털린, 『지적 행복론』 재구성

[바] 비행기를 탈 때 한국 신문을 하나 집어 들었어. 정치 기사는 대충 넘겼고, 경제 칼럼을 정독했지. 그런 거 읽다 보면 영어로 배운 경제 용어나 회계 용어가 한국어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유용하거든. 초저금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 자산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현금흐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더라. 매달 100만원씩 들어오는 수입이랑 자산 7억원을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한대. (중략)

밥을 먹는 동안 나는 행복도 돈과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 행복에도 ‘자산성 행복’과 ‘현금흐름성 행복’이 있는 거야. 어떤 행복은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성취했다는 기억이 계속 남아서 사람을 오랫동안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 줘. 그게 자산성

행복이야. 어떤 사람은 그런 행복 자산의 이자가 되게 높아. 지명이가 그런 애야. ‘내가 난관을 뚫고 기자가 되었다.’는 기억에서 매일 행복감이 조금씩 흘러나와.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녹초가 되어도 남들보다 잘 버틸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정반대지. 이런 사람들은 행복의 금리가 낮아서, 행복 자산에서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현금흐름성 행복을 많이 창출해야 돼. 그게 엘리야. 개는 정말 순간 순간을 살았지.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많은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하더라고. 내가 왜 지명이나 엘리처럼 살 수 없었는지, 내가 왜 한국에서 살면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나는 지명이도 아니고 엘리도 아니야. 나한테는 자산성 행복도 중요하고, 현금흐름성 행복도 중요해.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 현금흐름성 행복을 창출하기가 어려웠어. 나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지. 나는 이 나라 사람들 평균 수준의 행복 현금흐름으로는 살기 어렵다, 매일 한 끼만 먹고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걸.

미연이나 은혜한테 이런 걸 알려 주면 좋을 텐데. 개들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어. 시 어머니나 자기 회사를 아무리 미워하고 욕해 봤자 자산성 행복도, 현금흐름성 행복도 높아지지 않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 자기 행복을 아끼다 못해 어디 깊은 곳에 뽕뽕 싸 놓지. 그리고 자기 행복이 아닌 남의 불행을 원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야. 집 사느라 빚 잔뜩 지고 현금이 없어서 절절 매는 거랑 똑같지 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 가게에서 진상 떠는 거, 며느리 괴롭히는 거, 부하 직원 못살게 구는 거, 그게 다 이 맥락 아닐까?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주잖아.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각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된 문학 작품을 주제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해설

이 문항은 성격이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 개인의 행복 실현과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한국 사회의 현상을 나타내는 신문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개인의 번아웃 증후군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UN 행복보고서의 한국 부분을 분석하는 신문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개인의 심리 문제로 치부되는 행복을 수치화하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제시문 [다] 한국 노동 시장의 이원성을 지적하는 신문 칼럼(조영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가져온 것이다. 노동 시장의 이원화가 청년실업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이진석 외, 지학사, 29-30면)에서 요약하여 가져온 것이다. 행복의 객관적 조건을 정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인문 교양 서적인 『지적 행복론』(이스털린 저·안세민 역, 월북, 52-53면)에서 요약 및 재구성하여 가져온 것이다. 행복과 소득은 비례적 상관 관계를 가지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른 후에는 행복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사회적 비교라는 심리적 계기를 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장편 소설인 『한국이 싫어서』(장강명, 민음사, 184-186면)에서 가져온 것이다. 서술자가 호주행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를 행복에 대한 성찰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채점기준]

- [가]-[다]에 제시된 현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라]-[마]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가]-[다]의 현상을 평가하기 위해 [라]-[마]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가.
- [바]에서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분석하였는가?
- [가]-[마]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바]의 서술자가 추구하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가.

[유의사항]

- [가]-[다]의 현상을 단순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라]-[마]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바]의 서술자의 태도를 텍스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함.
- [가]-[마]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4. 예시답안

[가]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다]에서 보듯 노동 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구조의 불평등은 [나]에서 보이듯 행복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이를 [마]와 [바]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행복이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행복의 객관적 조건인 경제적 안정이 노동 시장의 이원적 구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조적 불평등은 끊임없는 사회적 비교를 개인에게 강요한다. 저소득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은 보장되지만, 일자리의 우열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상 개인들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의 서술자가 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서술자는 ‘자산성 행복’과 ‘현금흐름성 행복’으로 행복의 주관적 조건을 둘로 나누고 있다. ‘지명’은 ‘기자’라는 직업을 얻었다는 성취감만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도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엘리’는 직업적 안정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행복감을 가진다. 이들과 달리 서술자는 직업적 안정과 삶의 즐거움을 둘 다 추구하고자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미연과 은혜를 비롯하여,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다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사회적 비교를 발생시키는 사회의 구조를 외면하고 있다.

서술자가 추구하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나친 경쟁을 야기하는 노동 시장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은 타인과의 비교에만 몰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